

출장 복명서(베트남 '09.8.12~14)

□ 출장목적

- 2009년 10월 18일~24일 베트남-코리아 주간 중 10월 22일 국토포럼(09:00~12:30) 행사에 대한 사전 준비
 - NCC(National Convention Center) 예약 현황 파악
 -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공동 행사 협조 방안 마련
- 베트남 건설부 및 자원환경부 토지행정청과 포럼 인원 동원 및 포럼 행사 조율

□ 출장자 : 조진철 국제협력팀장

□ 출장 일정

- 8월 12일(수) : 19:35분 인천공항 출발 ~ 11:30분 하노이 도착
대우호텔 투숙
- 8월 13일(목) : 10:00시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주재원들과 행사의 전반적인 상황 점검
- 8월 13일(목) : 13:30분 NCC 예약 현황 등 행사장 점검
- 8월 13일(목) : 16:00시 홍강 전시물 확인
- 8월 14일(금) : 13:30분 건설부 방문 및 협조사항 토론
- 8월 14일(금) : 15:00시 자원환경부 토지행정청 방문 및 협조사항 토론
- 8월 14일(금) : 18:30분 베트남 주재 한국 건설협회 모임 참석 및 베트남-코리아 행사시 협조 요청

1.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 방문 및 협력

- 참가자 : 기획재정부, 브랜드위, 각 포럼 참가 부처 대표와 대사관의 외교관 참석
- 주요 토론 내용
 - 현재 베트남-코리아 주간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
 - 행사 주간 한 달 전에는 사전 준비 그룹이 베트남에서 직접 행사를 준비할 필요
 - 각 부처별로 현재까지 한국대사관에서 주선하는 형식이었으나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부처별로 책임을 갖고 움직일 필요
 - 기타 의전 등에 대해 토론

2. NCC 행사장 점검

- NCC는 2006년 ASEAN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던 곳으로 하노이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
- 10월 21일은 기획재정부 주관 경제포럼 및 서브포럼으로 전문가 포럼 개최
 - 주로 2층에 회의 장소 등을 예약
- 10월 22일은 기획재정부 서브포럼으로서 국토포럼 등 3개의 전문가 포럼을 개최
 - 22일 오전 국토포럼은 국토해양부의 첫 번째 행사로서 개최되며, 오후에는 4대강과 홍강 전시회(서울시와 수자원공사)를 개최 예정
 - 국토포럼 등 국토부 행사는 베트남 측에서 비교적 관심이 많은 행사로 공간이 큰 3층에 예약을 완료
- 국토포럼은 전시회와 같이 운영되므로 전시공간과 회의공간이 이웃

하도록 공간을 배정

- 현재 NCC에 대한 임대료는 모두 기획재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점심 제공 등은 부처별로 분담하도록 하였음
- 행사시 필요한 분야로서는 통역 형태 (베-영-한 또는 베-영)와 포럼 책자 발간, 초청장 발급 및 인원동원, 현수막 및 커피 제공, 중식 제공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
 - 국토포럼 책자 발간은 현지 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한국에서 제작하여 가져가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(행사 로고 등은 브랜드위와 협의 후 제공 예정)
 - 통역형태는 국토포럼의 경우 전문가 위주의 포럼이므로 영어를 중심으로 하되 현지인을 고려 영-베로 통일(다른 포럼도 영-베로 통일 중)하고, 베트남측의 환영사는 베-영으로 협의하였음
 - 한-베트남 통역은 완벽한 통역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, 현지 인력도 부족
 - 초청장 발급은 베트남 주재 국토해양관과 토의하되 직접 가능한지를 모색 중
 - 현수막, 커피, 중식 등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중식을 제외하고 현지 대행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측 대행사와 협의할 필요

3. 홍강 전시물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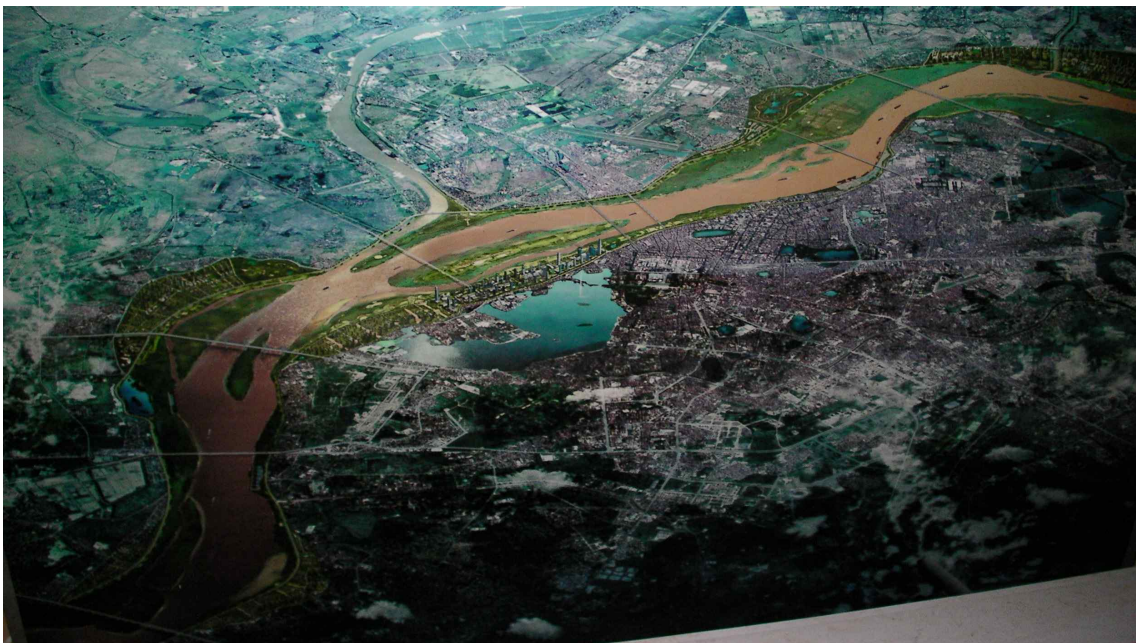
-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따라 홍강 전시물 확인 등을 실시
 - 홍강 전시물은 국토포럼 이후 4대강과 홍강 전시회가 있는 관계로 전시물의 규격, 종류 등을 파악하여 전시공간에 배치할 계획을 마련하기 위함
- 그러나 하노이시 홍강 전시관은 이미 철시한 상황이었으며, 전시물 만이라도 확인하기 위해 변두리 창고를 방문

-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수동으로 창고 셔터문을 열고 확인한 결과 먼지가 수북이 쌓인 전시물 일부를 볼 수 있었음
- 2004년 서울시와 하노이시간 MOU 이후 홍각개발계획은 남원엔지니어링(현재 (주)이산)에서 용역하였으며, 10m*3.5m 전시테이블 미니어쥘는 전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(다만,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실제 사용 가능한지는 확인할 필요)
- 또한, 이 미니어쥘는 옮기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한국측 대행사가 설명하였음 (조각을 내어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 발생)
- 몇몇 홍강개발계획 사진들은 무계획적으로 방치된 상태로 정리 정돈 이후 사용이 가능할 듯





- 사진들의 방치 상태로 보아 홍강개발계획이 현실화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감
 - 우선 베트남에서 건설 애로사항은 계획은 마련하였으나 실제 보상 및 철거가 순조롭지 않아 계획만 있는 상태가 많음
 - 홍강 개발에 따라 이주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도 17만 정도로 현재 베트남의 건설여건으로 보아서는 가능하지 않음



- 또릿강 정비와 주변의 재개발을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홍강개발계획의 차선택 제안이 필요
 - 현재 2009년 7월 서울시는 하노이시와 또릿강 개발에 대한 의사를 타진 중
 - 또릿강은 서울의 청계천과 유사한 규모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내천
- 홍강 강북 개발 계획을 차선택으로 제안하는 것도 한 방법
 - 하노이시는 홍강을 중심으로 남쪽에 도심이 위치하였으나 강수면보다 낮은 하노이시는 하수가 원활하지 않아 잦은 범람을 경험
 - 하노이시에는 많은 호수(서호, 후안끼엠 등)가 있는데 이들 모두는 강의 범람과 지대가 낮은 결과로 발생한 호수들임
 - 아마도, 농경 중심사회에서 물의 확보가 용이한 홍강의 남쪽에 도시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
 - 상대적으로 강북은 호수가 발달하지 않았으며, 인구가 드물게 분포함에 따라 개발 가능지가 풍부하고, 무엇보다 도심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베트남의 보상 및 철거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 가능
 - 홍강의 정 중앙에 우리의 여의도와 유사한 규모(약 60만평)의 섬도 있으므로, 우리의 강남개발과 유사하게 강북을 개발한다면 하노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
 - 특히, 현재 하노이는 신도시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통, 주거 등이 몹시 열악한 상황
 - 다만, 강북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홍강 다리가 건설될 필요
 - 또한,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노이~호치민간 고속철의 경우 강북까지 노선을 확대 연장하도록 계획을 입안할 필요

4. 건설부 방문 및 협조 토론

- 참가자 : 베트남 건설부 국제협력팀장, VIAP 부원장, 유성용 참서관 배석
- 베트남 건설부는 도시계획, 개발 등에 관심이 있으며, 이를 중심으

로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면 함

- 우리 국토포럼의 경우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
- 인원은 베트남 건설부가 약 70~80명을 동원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불가
- 한국측 건설기업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들을 적극 수용하길 희망
- 향후 국토포럼 내용 및 행사 협조를 위해 건설부 국제협력팀장과 협의하기로 하고 연락처를 교환



VIAP 부원장과 건설부 앞에서

5. 자원환경부 토지행정청 방문 및 협조 토론

- 참가자 : 베트남 자원환경부 토지행정청 부청장 등 5인 참석
- 토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자원환경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, 건설은 건설부에서 담당함이 옳을 듯 함
- 오전 밖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시간이 부족하고, 베트남 부

처간에 갈등도 있으므로 잘 조정하여 준비하였으면 함

○ 연락처를 교환하고 조정안을 협의하기로 함



자원환경부 토지행정청 부청장과 직원과 함께